

在美韓人の 정보행태*

- 중서부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

Information Behavior of Korean Residents in Mid-West Area of the U.S.

이 제 환(Jae-Whoan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2. 정보부족의 외양과 속내 |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IV. 정보추구의 보편적 양태 |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1. 정보소스의 유형과 실체 |
| II. 조사대상 집단의 의식과 행태 | 2. 정보소스의 선호 이유 |
| 1. 민족정체성에 대한 의식 | V. 민족정체성과 정보행태 |
| 2. 의사결정의 보편적 행태 | 1. 정보요구에서의 차이 |
| III. 일상적 고민과 정보의 부족 | 2. 정보추구에서의 차이 |
| 1. 고민의 양상과 대처 행태 | VI. 결론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일상적 정보행태의 관점'에서 재미한인의 삶을 조망하되 거주지역과 민족정체성이라는 변수가 그들의 정보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와는 달리 학자들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美대륙 중서부에 위치한 3개 洲(켄터키, 인디애나, 오하이오)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논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기본적인 문헌조사에 더해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거주지역과 민족정체성에 따라 재미한인의 정보행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재미한인과 같은 소수민족 집단을 위한 정보복지정책은 정보행태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수립되어야함을 권고하고 있다.

키워드: 정보추구행태, 정보행태, 정보복지, 정보정책, 소수민족, 재미한인, 민족정체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unique features in the everyday information behavior of Korean Americans, in particular, the sub-group residing in the Mid-west area such as Ohio, Kentucky, and Indiana. Major focus was on uncovering the impacts of ethnic identity and residential environment on their information behavior. The data for discussion were mainly collected by a full-scal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In conclusion, suggested is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welfare policie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various and complicate information behaviors of ethnic minority groups(such as Korean Americans).

Keywords: Information Behavior,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Information Welfare, Information Policy, Korean Americans, Ethnic Minorities, Ethnic Identity

* 이 연구는 2006년도 부산대학교 해외장기파견 연구기금에 의해 지원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wleeh@pusan.ac.kr)

• 접수일: 2008년 5월 1일 • 최초심사일: 2008년 5월 26일 • 최종심사일: 2008년 6월 21일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정보학자 Dervin은 “정보는 결국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의미를 지니는 주관적 산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정 개인의 정보에 대한 요구는 정보 자체의 객관적인 특성이나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주관적으로 형성되며 처한 상황이 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주장이다.¹⁾ Dervin의 이러한 견해를 차용해 본다면, 비자발적 집단 이주가 아닌 개인적 판단에 따라 특정 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을 시도해온 소수민족집단의 경우 ‘민족성’ 못지않게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적’ 변수가 그들의 정보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적 변수에 따라 동일 민족집단 내부에서도 정보행태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정보행태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집단적 관점에서 보편적 속성을 파악하는데 치우치다 보니 구성원들의 개인적 상황과 성향에 대한 관찰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한계는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재미한인’을 사례로 하여 윤정옥이 수행하였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²⁾ LA지역 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윤정옥은 “재미한인은 전반적으로 만성적 정보결핍 증세를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일상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곤란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재미한인’은 미국 대륙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인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대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 가운데서도 윤정옥의 연구에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재미한인은 일상적 정보의 추구에 있어 다른 소수민족들과는 달리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재미한인의 정보추구행태는 미국 주류사회의 중산층 시민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한발 더 나가 윤정옥은 그러한 자신의 조사결과가 “소수민족의 정보추구행태를 사회경제적 빈곤층과 동일시해온 기존의 연구경향³⁾에 반론을 제기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1) Dervin은 특히 소수민족의 정보행태는 민족성 못지않게 각 민족이 처해있는 환경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인종이나 민족이 처해있는 환경의 차이는 삶의 철학과 경험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러한 차이는 다시 삶을 영위하는 방식의 차이를 불러와, 궁극적으로는 정보행태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B. Dervin and D. Nilan, “Information Needs and Uses,”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21(1986), pp.3-33; B. Dervin et al., *The Information Need of Californians-1984*(Davis, CA : Institute of Governmental Affairs, UC Davis, 1984), pp.12-17.

2) 윤정옥은 LA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인 204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 설문과 면담을 통해 그들의 정보추구행태가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Cheong-ok Yoon, *The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Koreans in The United States*(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92).

3) 미국 내 소수민족집단들의 정보추구행태를 조사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소수민족집단의 구성원들이 정보요구에

있다. 그러나 그녀의 주장을 재미한인의 보편적 행태로 받아들이기에는, 그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거대한 민족 커뮤니티를 배경으로 갖고 있는 LA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근본적 한계가 되어 다가온다.

여기서부터 필자의 의문은 구체적으로 이어진다. 윤정옥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재미한인은 과연 지식수준이나 거주기간 등과 같은 개인적 변수에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정보결핍’ 증세를 겪고 있을까? 정보추구의 ‘적극성’을 근거로 재미한인의 정보추구행태가 주류사회의 중산층과 유사하다고 내린 결론에는 무리가 없을까? 재미한인의 ‘적극성’은 개인적 성향이나 환경적 차이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민족적 특성일까? 무엇보다도 재미한인 내부에도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존재할 텐데, 인구학적 혹은 환경적 변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정보행태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어떻게 설명되어 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 중에서도 특히, 거주지역과 같은 환경적 요소와 민족정체성과 같은 개인적 요소가 재미한인의 정보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 보고 싶은 욕구가 컸다. 특히, 이번 在美韓人에 대한 연구에 앞서 在日韓人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인구학적 변인과 거주지역의 차이에 따른 정보행태의 차이를 확인한 바 있었기에, 재미한인에 비해 이주의 배경과 동기는 물론이고 거주 환경이나 개인적 성향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재미한인을 대상으로 정보행태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밝혀내 보고 싶었다. 이처럼, ‘일상적 정보행태의 관점’에서 재미한인의 삶을 조망하되 거주지역과 민족정체성에 따른 정보행태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이번 연구에서 필자가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개념은 ‘거주지역’과 ‘민족정체성’이다. 즉, 거주지역과 민족정체성에 따라 정보행태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거주지역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에 형성된 민족 커뮤니티의 규모와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민족정체성과 관련하여서는 ‘주류사회로의 동화의 정도’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⁴⁾ 이처럼, 지역에 형성된 민족

대한 인식의 결여, 표현능력의 부족, 정보를 구하려는 의지의 부족, 정보를 구할 때 제한적인 정보원을 이용하는 특성을 보이는 등, 사회경제적 빈곤층과 유사한 정보추구행태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 4) 이주집단의 행태를 연구해온 일단의 사회학자들이 주장해 왔듯이, ‘주류사회로의 동화의 정도’는 이주민의 일상적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다. 이렇듯 ‘민족정체성’을 거시적 관점에서 정의한다면 “공유된 민족적 특성들로 인해 한 개인이 특정 민족집단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학자 Uba는 “민족정체성은 (1)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민족집단에 대한 지식, 신념, 기대 등을 갖게 하고, (2) 그 개인이 사물이나 상황 그리고 타인을 인식하고 해석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인지적/정보처리적 프레임워크 또는 필터로서 기능하며, (3) 그 개인의 행위의 기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민족정체성은 일종의 자아개념으로서 다문화 사회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소수민족에게는 의식과 사고의 기반이 되기도 하며 일상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로 기능하기도 한다. Laura Uba, *Asian Americans : Personality Patterns, Identity, and Mental Health*(New

커뮤니티의 규모와 활동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일상적 정보행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이 연구의 첫 번째 논제이며, 나아가 주류사회로의 동화의 정도가 일상적 정보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이 연구의 두 번째 논제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재미한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대규모 '한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대도시지역의 한인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美대륙 내부의 '주변부'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중서부에 위치한 3개 洲(켄터키, 인디애나, 오하이오)에 흩어져 거주하면서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한인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지역은 한인의 밀집 정도나 민족 커뮤니티의 규모와 활동에 있어 대도시지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느슨하고 미약하며,⁵⁾ 특히, 인구학적 측면에서 대도시지역의 한인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되었기 때문이다.⁶⁾

논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수집은 두 가지 방법에 의거하였다. 먼저, 조사대상 지역에 형성된 한인 커뮤니티의 특성과 거주 한인들의 일상과 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각종 문헌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이어, 본격적인 원시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콜럼버스, 데이튼, 신시내티, 인디애나폴리스, 렉싱턴, 루이빌 등 조사지역 내에서 거주 한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6개 도시를 선정하고, 이들 도시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 지역에 형성된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단체 중에서 한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지역 단위의 한인회와 대표적인 한인교회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면담하였으며, 특히 한인교회 중에서 대표적인 17곳을 선정하고 목회자들의 협조를 얻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⁷⁾

설문조사는 2007년 3월과 4월에 걸쳐 해당 지역의 17개 교회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교회마다 작게는 5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교회구성원의 인구학적 분포에 의거한 표본을 추출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⁸⁾ 설문조사를 통해 모두 163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나 이 중

York : Guilford Press, 1995).

5) 외교통상부에서 발간한 在外同胞現況(서울 : 외교통상부, 2003)에 의하면 이들 3개 주를 잇는 삼각 벨트 지역에는 215만 재미한인의 약 7%에 이르는 33,000명 내외의 한인들이 주변의 중소도시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거주하고 있다. 필자가 이들 지역을 방문해 보니 LA나 New York과 같은 대도시지역에서 볼 수 있는 '한인타운'과 같은 밀집 거주지역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몇몇 한인상점들이 느슨한 형태로 모여 있는 지역이 간혹 눈에 띄일 뿐이었다.

6) 이 논문의 '2장 조사대상 집단의 의식과 행태'에 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7) 설문조사의 표집도구가 될 수 있는 전화번호부나 주소록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확률표집법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대안으로 의도적 표집법을 선택하였다. 재미한인사회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재미한인의 약 70%가 한인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한인1세의 경우 75% 이상이 한인교회를 정기적으로 찾을 정도로 한인교회가 단순한 종교기관의 역할을 넘어서 한인 커뮤니티의 일상적 커뮤니케이션 노드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형욱, 미국한인사회단체의 현황과 조직 특성(광주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2004); 한미동포재단, 미주 한인 이민 100년사(LA : 한미동포재단, 2002).

8) 이들 교회에 출석하는 한인들 중에서 목회자의 도움을 얻어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세대,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

에서 일부 답변이 누락된 5부를 제외하고 충실히 답변된 158부를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수집한 데이터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전반적인 정보행태는 물론이고 개인적 성향과 상황에 따른 정보행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되고 해석되었다. 이어 정량적 연구에서 범하기 쉬운 해석의 오류를 보완하고, 특히 비확률표집에 따른 조사결과의 일반화에 있어서의 한계를 다소나마 완화해 보고자 설문조사를 도와준 목회자와 한인회 관계자 26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해당 지역 한인들의 정보행태의 속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II. 조사대상 집단의 의식과 행태

국사편찬위원회가 2003년에 발간한 『미주지역 한인 이민사』에 의하면, 재미한인은 이주의 동기만큼이나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거주지역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소수민족집단으로서 재미한인에게서 발견되는 특성으로는 거주신분에 있어 시민권자(30%)보다는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영주권자(60%)가 월등하다는 점, 가족 단위의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25%)이 주류사회의 평균 비율(10%)에 비해 높다는 점, 사회경제적 활동에 있어 민족 커뮤니티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고학력 화이트칼라 출신의 구성 비율이 높으며,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와 그에 따른 교육열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이 관련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소수민족집단으로서의 특성 중에는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민족정체성’과 관련하여서도 매우 흥미로운 성향이 감지된다. 가령, 미국의 11개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민족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의에서 모국지향적인 성향을 보인 응답자가 약 66%인데 비해 미국지향적인 성향을 보인 응답자는 9%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이러한 성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올림픽에서 한국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자(80%)가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자(15%)에 비해 압도적이며, 족내결혼을 선호하여 혼인상대로 한국을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7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재미한인의 모국지향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⁹⁾

그렇다면 이번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은 중서부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어떠한 집단적 성향을 보이고 있을까? 여기서는 인구학적 특성에 기초하되, 앞서 제기한 논제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여 가능한 인구학적으로 고르게 표본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문조사는 기본적으로 특정 종교기관을 통한 비확률표집방식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조사의 결과를 해당 지역 한인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재미한인의 언어문화 상황에 대한 보고서(서울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7), pp.68-71.

‘민족정체성’과 ‘의사결정 행태’를 중심으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집단적 성향을 간추려 소개하고자 한다.

1. 민족정체성에 대한 의식

다음의 <표 1>은 설문에 참가한 한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인구학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 나타나듯이, 설문응답자의 연령은 40대 이상이 약 80%에 이를 정도로 장노년층의 비중이 큰 편이었으며, 학력은 대졸이상이 약 53%로 재미한인의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¹⁰⁾ 직업에 있어서도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21.5%에 이를 정도로 재미한인의 평균치를 상회하였는데, 이러한 집단적 특성은 거주기간과 거주신분에서도 이어졌다. 이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18.3년으로 대도시지역 한인의 평균에 비해 거의 2배에 이를 정도로 길었으며, 61%가 시민권자로 대도시지역 한인의 구성비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인구학적 특성에 있어 대도시지역의 한인들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여, 이 지역 한인들의 삶의 궤적이 대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과는 여러모로 다를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였다.¹¹⁾

<표 1> 설문참가자들의 인구학적 성향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성별	남	71	44.9	51.4
	여	67	42.4	48.6
	무응답	20	12.7	
	합계	138	100.0	100.0
연령	20대 이하	8	5.0	6.1
	30대	21	13.3	16.0
	40대	43	27.2	32.8
	50대	39	24.7	29.8
	60대 이상	20	12.7	15.3
	무응답	27	17.1	
	합계	158	100.0	100.0
학력	중졸 이하	4	2.5	3.3
	고졸	32	20.3	26.7
	대졸 이상	84	53.2	70.0
	무응답	38	24.1	
	합계	158	100.0	100.0

10)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이러한 비율은 앞서 언급한 LA지역 한인을 대상으로 한 윤정옥의 조사에서 파악했던 41%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이다. 고학력자의 비율이 이렇듯 높은 이유를 해당 지역의 한인회 관계자와 목회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는데, 가장 큰 그리고 직접적인 이유는 해당지역 거주 한인의 상당수가 ‘유학생’ 출신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응답자의 구성 역시 그러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1)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은, 이들의 주류사회로의 편입과 동화 또한 대도시지역에 비해 긴 시간에 걸쳐 ‘농도 짙게’ 진척되어 왔음을 짐작하게 하였다.

직업	전문직	34	21.5	29.3
	사무직	9	5.7	7.8
	비사무직	11	7.0	9.5
	자영업	30	19.0	25.9
	학생/주부/무직	32	20.3	27.6
	무응답	42	26.6	
	합계	158	100.0	100.0
체류신분	시민권자	81	51.3	61.4
	영주권자	29	18.4	22.0
	기타	22	13.9	16.7
	무응답	26	16.5	
	합계	158	100.0	100.0
거주기간	10년 미만	30	19.0	21.9
	10년~19년	39	24.7	28.5
	20년~29년	43	27.2	31.4
	30년 이상	25	15.8	18.3
	무응답	21	13.3	
	합계	158	100.0	100.0

인구학적 관점에서 파악된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은 그들의 속내에서도 어느 정도 일치되어 나타났다. 그들의 속내를 알아보기 위해 필자는 단선적이 아닌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였다. 즉, '일상적 마음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다음의 질의를 통해 그들의 마음속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¹²⁾

질의 1: 다음 신문기사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기사를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 ① 플로리다 해안의 해일로 막대한 인명 피해 발생!
- ② 뉴욕의 한인 상가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
- ③ 한국의 울산 지역에 강도 7의 대규모 지진 발생!

응답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는 흥미로웠다. ① '플로리다 해일 기사'를 선택한 응답자가 42.4%, ② '뉴욕상가 화재 기사'를 선택한 응답자가 33.8%, ③ '한국울산 지진 기사'를 선택한 응답자가

12) 물론 단답형의 질의를 통해, 그것도 성향을 유추하는 수준의 간접 질의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구분해 낸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 메시지 중에서 특정 메시지에 대한 관심은 수신자의 성향을 판단하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시도를 해보았다. 단, 가외변인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 질의에 따른 '유형화 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집단별 '동화의 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추가 질의를 실시하였다. 앞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족내결혼'에 대한 의향을 물어보았는데, 조사결과, 족내결혼에 대한 선호도가 ③번의 모국지향형에서 가장 강하게, 이어서 ②번의 동포사회형, ①번의 주류동화형의 순서로 선호도가 뚜렷하게 구별되어 나타나, <질의 1>이 조사대상 집단을 '민족정체성'에 따라 유형화하는데 있어 나름대로 '의미있는' 기준임을 보여주었다.

23.8%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조사대상 한인집단에는 '주류동화형'(①번 답변자)이나 '동포사회형'(②번 답변자)의 한인들이 '모국지향형'(③번 답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¹³⁾ 이는 다시 조사대상 지역 한인들의 '주류사회로의 동화'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LA나 New York과 같이 민족 커뮤니티가 발달한 대도시지역의 한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성향과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또한 일단의 사회학자들이 제기해 온 '분절적 동화론(segmented assimilation)'이 재미한인 집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분절적 동화론자들은 이민자들의 적응 및 정착 양상이 단순한 이분법적(즉, 주류사회에 점진적으로 동화할 것이냐 혹은 독자적인 민족 집단을 유지해 갈 것이냐) 형태가 아니라 이민자들의 다양한 개인적 배경(문화적, 사회적 자본의 측면에서)과 그들이 정착하게 되는 주류사회의 구조적 측면(지리적, 경제적 환경)에 따라 다양성을 띠고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⁴⁾ 그들의 주장대로, 중서부지역의 한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결과는 동일한 소수민족의 구성원이라도 거주지역(여기서는 구조적 환경)에 따라 '주류사회로의 동화의 정도'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의사결정의 보편적 행태

민족정체성이 소수민족집단의 일상적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로 기능하고 있음은 사회학자들에 의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¹⁵⁾ 즉, 주류사회로 동화한 구성원의 경우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처리의 행태가 주류사회 구성원과 대동소이하게 나타나는 반면, 민족정체성을 짊어 유지하고 있는 구성원의 경우 모국사회의 구성원에게서 나타나는 행태와 유사한 면면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정보행태' 분야의 연구자들 또한 특정 집단의 '정보행태'를 관찰하는데 있어 그들의 '일상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처리 과정'에서의 특성에 주목해 왔다. 이러한 관점을 중시하면서 필자 또한 조사대상 집단의 '정보행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동화의 정도'와 '의사결정 행태' 사이의 관계를 개괄적이거나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13) 이는 후술할 '분절적 동화론'에 기초한 설정으로, 여기서 '주류동화형'이 미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이 매우 강한 반면에 한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은 거의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다면, '모국지향형'은 미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은 거의 없고 모국(한국)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들이 '민족정체성'에 있어 양극을 대변한다면 '동포사회형'은 한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과 미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현실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면서 현지 한인사회에 대한 일상적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사람들을 지칭한다.

14) H. Gans, "Toward a Reconciliation of Assimilation and Pluralism : the Interplay of Acculturation and Ethnic Reten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31, No.4(1997), pp.875-892; A. Portes, "Introduction : Immigration and Its Aftermath,"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28, No.4(1994), pp.632-639.

15) 각주 4)의 내용 참조.

질의 2: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실 때 주로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 ① 평소 신뢰하는 사람(가족/친구/동료)에게 물어본 후 그들의 권유에 따른다.
- ② 평소 대중매체 등을 통해 익숙했던 제품을 매장에 가서 살펴보고 선택한다.
- ③ 미리 관련 자료 등을 찾아 여러 제품의 장단점을 비교해 본 후 매장에 간다.
- ④ 직접 매장으로 가서 여러 제품을 둘러보고 나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한다.

<질의 2>에 대한 응답 내용을 분석해 보니, ③번의 '자료참조형'이 42.7%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④번의 '매장직행형'(22.2%), ②번의 '매체의존형'(20.4%), 그리고 ①번의 '주변참조형'(14.6%)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중서부지역 한인의 구매를 위한 '의사결정 행태'가 보편적인 한국인의 행태¹⁶⁾보다는 미국 주류사회 구성원의 행태¹⁷⁾에 근접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소비에 있어 직관이나 감성에 의한 의사결정보다는 객관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행태가 일정 부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도시지역 한인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직관 혹은 감성적 의사결정 행태가 중서부지역 한인에게서는 보편적인 성향이 아니며, 앞서 민족정체성 부분에서 파악했던 이 지역거주자의 '동화의 농도' 또한 단순히 외형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에 '의사결정 행태'가 '동화의 정도'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파악해 보았더니, 앞서 구분했던 '민족정체성의 유형'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즉, 주류동화형과 동포사회형 그룹에서는 자료참조형이 가장 많았으나 모국지향형 그룹에서는 주변참조형이 가장 많은 현상을 목도할 수 있었다.¹⁸⁾ 이러한 유형에 따른 구분에 더해, 거주신분이나 거주기간과 같이 '동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에 따라서는 '의사결정 행태'에서의 차이는 두드러졌다. 가령, 시민권자들 사이에서는 자료참조형이, 영주권자들 사이에서는 주변참조형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거주지역에 더해서 민족정체성이라는 개인적 변인에 따라서는 '의사결정 행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⁹⁾

그렇다면 중서부지역의 한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의식과 행태'의 특성은 그들의 일상적 정보행태에 어떻게 녹아 있을까?

16) 이영준 등, "한국 도시소비자의 구매행태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제10권 제1호(1989.01), pp.23-48; 김영진, "한국인의 비논리적 사고와 행동," 한국논단 제4권(1989), pp.151-158; 김영명, 신한국론 : 단일사회 한국, 그 빛과 그림자(고양 : 인간사랑, 2005), pp.159-180; 강준만, 한국인코드(서울 : 인물과사상사, 2006), pp.37-56.
 17) Roger Blackwell et al., *Consumer Behavior*(Mason, OH : Thomson South Western, 2006), pp.68-99 & 109-127; Donald Case, *Looking for Information : a Survey of Research on Information Seeking, Needs, and Behavior*(New York : Academic Press, 2007), pp.18-22.
 18) 주류동화형에서 52%, 동포사회형에서 39%가 자료참조형으로 가장 많았으나, 모국지향형에서는 34%가 주변참조형으로 가장 많았다.
 19) 이는 또한 후에 5장에서 다룰 '민족정체성에 따른 정보행태의 차이'가 학술적으로나 실용적으로 의미있는 시도라는 사실을 앞서 보여준다.

Ⅲ. 일상적 고민과 정보의 부족

일상적 관점에서 특정 집단의 정보행태를 연구하고자 할 때에는 특정 상황이나 사건의 맥락을 통해 정보추구(혹은 기피)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양상이나 실태를 파악하기에 앞서 거시적 관점에서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패턴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그들이 일상에서 흔히 당면하는 ‘고민의 유형’을 가려내고, 그 유형에 대처하는 보편적 패턴을 조사하고, 그 외중에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해결에 난항을 겪는 고민을 선별하여 가려내는 작업은 일상적 관점에서 정보부족 현상의 외양과 속내를 읽어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서는 중서부 지역 한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일상적 고민을 그들이 느끼는 정보부족 현상과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고민의 양상과 대처 행태

이주자 집단에는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고 정착해야 하는 그들만의 고뇌와 번민이 늘 따라다닌다. 생존을 위한 터잡기 과정에서부터 주류사회의 이질적인 가치와 행태에 적응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뇌와 번민이 그들의 일상을 떠나지 않는다. 재일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필자는 그러한 일상적 고민의 실체를 확인한 바 있다.²⁰⁾ 그들의 머리에는 ‘정체성을 둘러싼 혼돈과 갈등’이 대를 이어 지속되고 있었으며, 그로부터 기인하는 학업(교육), 연애(결혼), 가족관계, 대인관계, 사회활동 등에 관한 고민은 주류 사회의 일반인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절박한’ 상태에 있었다. 이것만이 아니었다. 취업과 사업 활동에 있어서의 차별, 각종 사회보장의 미비와 그로 인한 건강과 노후에 대한 불안 등은 타지로 이주한 ‘소수민족’으로서 그들이 숙명처럼 안고 있는 일상적 고민이었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인 미국 중서부지역으로 이주한 한인들 또한 이러한 일상적 고민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해 보니, ‘건강과 안전’(18.6%), ‘취업과 사업’(15.3%), ‘자녀의 교육’(14.2%), ‘노후생활’(12.2%) 등과 같이 ‘생존(survival)과 안정(safety)’에 관련된 문제가 그들의 일상적 고민 리스트에서 상위를 점하고 있었고, ‘대인관계’(7.1%), ‘사회활동’(6.4%), ‘정체성’(4.1%)과 같은 사회화(socialization) 과정에서의 고민 또한 심심치 않게 표출되고 있었다. 그들에게서 관찰된 이러한 특성을 대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니, 거주지역과 개인적 배경에 따라 고민의 순위와 농도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²¹⁾

20) 이제환, 재일한인의 정보행태와 정보빈곤(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6), pp.45-92.

21) 재일한인에 대한 연구에서 올드커머(이주의 역사가 긴)의 비중이 큰 오사카지역과 뉴커머(이주의 역사가 짧은)

구체적으로 중서부지역에서는 ‘건강과 안전’과 같이 ‘삶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한인들이 가장 많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대도시지역의 한인들이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로 ‘육아와 교육’을 선택하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²²⁾ 이러한 경향은 앞서 논의한 조사대상 지역 한인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40대 이상의 장노년층의 비중이 크고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중서부지역 한인들에게는 ‘생존’의 단계를 넘어 ‘안정’이 일상의 우선적 키워드로 떠올라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짐작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그들의 관심도를 연령과 거주기간에 따라 분석해 보면 보다 분명해 지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건강과 안전’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²³⁾

그렇다면 이러한 일상적 고민에 대해 조사대상 한인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고민에 대한 대처에 있어 ‘적극성’을 가늠해 보기위해 필자가 제시한 질의는 다음과 같았다.

질의 3: 평소에 고민거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 ① 고민만 할 뿐 해결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
- ②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다가 어려우면 포기한다.
- ③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다가 어려우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 ④ 처음부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응답 내용을 분석해 보니, ③ ‘노력 후 도움 요청’이 75.5%로 압도적이었으며, ② ‘노력하다 포기’가 11.0%, ④ ‘처음부터 도움 요청’이 9.7%, 그리고 ① ‘전혀 노력하지 않음’이 3.9%로 뒤를 이었다. 이렇듯 조사결과는 ③번과 ④번 응답이 전체의 85.2%에 이를 정도로 일상에서 당면하는 고민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는’ 적극적인 성향이 중서부지역 한인에게서 나타남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적극적인 성향은 윤정옥의 연구에서 “LA지역 한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구하는 것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재미한인의 정보행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주요한 민족적 특성으로 보인다.

이제 문제는 조사대상 한인들이 고민의 해결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주변’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다음의 <질의 4>는 이에 대한 궁금증을 덜고자 제시한 질문이었다.

의 비중이 큰 동경지역의 차이는 뚜렷하였다. 즉, 오사카지역의 한인들에게는 ‘건강과 안전’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으나 동경지역의 한인들에게는 ‘취업과 사업’에 이어 ‘육아와 교육’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22) 윤정옥,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 한인의 정보추구행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5집(1993. 12), pp.394-396.

23) 구체적으로,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한인 중에서 ‘건강과 안전’을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9.2%인 반면, 10년 이상 20년 미만에서는 21.1%, 20년 이상 30년 미만에서는 23.1%, 30년 이상 40년 미만에서는 23.7%, 그리고 40년 이상에서는 50%로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서도 ‘건강과 안전’을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20대 이하에서는 14.3%에 그친 반면, 30대에서는 10.0%, 40대에서는 18.6%, 50대에서는 22.2%, 60대 이상에서는 26.5%로 나타났다.

질의 4: 고민의 해결을 위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한다”면, 다음 대상 중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시겠습니까?

① 가족/친척 ② 친구 ③ 이웃 ④ 동료(직장이나 모임)
 ⑤ 전문가(가령, 법률가/의료인/보험설계사 등)
 ⑥ 관련기관(가령, 법률/교육/복지 등에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단체)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응답 내용을 분석해 보니, 조사대상 한인들이 ‘고민의 해결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주변의 정체’는 가족/친척(31.5%), 전문가(22.4%), 친구(20.3%), 관련기관(14.0%), 동료(5.6%), 이웃(4.2%)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중서부지역의 한인들이 고민의 해결을 위해 공식적 정보원(약 36.4%)보다는 다양한 인연에 따른 비공식적 정보원(약 61.6%)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²⁴⁾ 이런 조사결과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부분은 중서부지역 한인들의 ‘전문 정보원’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1/3이 넘는 응답자가 고민의 해결을 위해 전문가나 관련기관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높은 수치는 “소수민족집단은 사회경제적 빈곤층과 유사하게 일상적 도움을 얻고자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찾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²⁵⁾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과이다.²⁶⁾

2. 정보부족의 외양과 속내

일상에서 당면하는 모든 고민거리가 정보의 부족에서 기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미 밝혀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안고 사는 고민의 실체와 원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도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일상을 영위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막연히 고민의 해결을 위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관련 정보가 있었으면’하는 바람을 갖고 주변을 기웃거리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얼마나 정보에 굶주려 있으며 그러한 굶주림을 채우려면 어떠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스스로 인지하고 표출하는 데는 대단히 미숙하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일상과 관

24) 이러한 경향은 소수민족집단들에서는 물론이고 일반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빈번하게 관찰된 바 있으며, 재일한인을 대상으로 한 필자의 연구에서도 ‘주변 인물’에 대한 선호도는 거의 절대적(약 88%)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25) C. Chen and P. Herson, *Information Seeking : Assessing and anticipating user needs*(New York: Neal-Schuman, 1982) ; B. Dervin et al., *The Information Needs of Californians-1984*(Davis, CA : Institute of Governmental Affairs, UC Davis, 1984) ; C. Metoyer-Duran., *Gatekeepers in Ethnolinguistic Communities*. (Norwood, NJ : Ablex, 1993).

26) 이러한 조사결과는 앞서 설명한 바 있는, 이 지역 한인들의 일상적 의사결정 행태를 통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는데, 즉, 타 지역에 비해 ‘자료참조형’이 월등히 많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한인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련한 정보요구를 파악하는 작업이 지난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면서 조사대상 한인들의 가슴에 담겨 있는 ‘정보요구’를 그들이 일상에서 인식하는 ‘정보부족’ 현상과 연계해서 가늠해 보고자 한다.

질의 5: 평소에 생활하면서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일(가령, 물건을 산다든가, 병원을 물색한다든가, 여행지를 고른다든가, 보험을 든다든가 등)과 관련하여 정보가 부족해서 웬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응답 내용을 분석해보니 무려 83.5%에 이르는 절대 다수가 ‘일상적 정보의 부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정보의 일상적 가치’에 대한 중서부지역 한인의 인식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반증한다. 가령, 재일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일한 질의를 던졌을 때 응답자의 52%만이 일상에서 ‘정보의 부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었다. 당시 재일한인의 그러한 반응은 그들 주변의 정보환경이 우수하여 일상적 정보의 활용이 용이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보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었다. 인식조차 못하다보니 자신의 일상적 어려움이 정보의 부족과 연관이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조사대상 재미한인은 달랐다. 그들의 절대 다수는 정보사회의 의미를 체감하고 있었고, 정보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다.²⁷⁾

이제 우리의 관심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옮겨보자. 그들이 ‘정보의 부족’을 느끼고 있는 영역 혹은 분야는 과연 무엇일까? 이를 위해 제시한 질의는 다음과 같았다.

질의 6: 일상에서 정보의 부족을 느낀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영역 혹은 분야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하게 느끼셨습니까? 종교, 행정, 의료, 교육, 경제, 기술, 문화, 복지, 법률, 여가, 정치, 금융, 정체성, 가족관계, 대인관계, 사회참여, 그리고 기타 중에서 두 영역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답변을 분석한 결과, 정보부족을 호소한 응답자가 많은 영역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법률(28.4%), 의료(15.2%), 교육(9.1%), 행정(9.1%), 경제(7.8%), 금융(7.4%), 복지(5.8%), 대인관계(4.1%), 사회참여(3.7%), 정치(2.9%), 문화(2.5%), 종교(1.6%), 여가(1.2%) 등, 이처럼 법률이나 의료와 같이 전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영역에서 정보의 부족을 호소하는 한인들이 월

27) 이러한 경향은 면담에 참가한 목회자와 한인회 관계자들의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인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실질적인 정보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에 그들이 접촉하는 한인(개인 혹은 소집단별로)들이 지니고 있는 정보 관련 속성과 경향을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등히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지역 한인들의 일상적 정보요구가 대도시지역의 한인들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가령, 윤정옥의 연구에서 LA지역 한인들의 경우 ‘양육/교육’(26.9%), ‘경제’(18.3%)에 대한 정보요구가 ‘건강’(16.1%), ‘법률’(8.6%)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한편,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정보부족의 영역에서의 차이 또한 뚜렷하였다. 가령, 대인관계나 사회참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은 거주기간이 길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표출되었으며, 의료와 관련된 정보부족은 주로 블루칼라 종사자들과 노인층에서 두드러졌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법률과 행정과 같은 전문 영역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제반 영역에 걸쳐 정보부족 현상을 폭넓게 느끼고 있었다. 이에 더해,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행정, 복지 그리고 의료 등과 같이 공공적 영역에서의 정보부족 현상이 짙게 나타났으며, 시민권자에 비해 영주권자에게서 사회 적응 과정에서 절실한 행정이나 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정보의 부족을 호소하는 경향이 짙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조사에 참여한 중서부지역 한인들은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이러한 일상 정보의 부족 현상이 어떤 연유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다음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질의 7: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면서 관련 정보의 부족을 느끼신 적이 있다면, 그러한 정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해서
- ②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부족해서
- ③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변 시설과 환경이 열악해서

답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보부족의 원인을 ①번의 ‘자신의 노력 부족’으로 여기고 있는 응답자가 가장 많아 48.1%에 이르렀다. 이를 이어 ②번의 ‘자신의 지식과 능력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응답자 또한 40.5%에 달해, 중서부지역 한인들의 절대 다수가 일상적 정보부족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단지 11.5%만이 정보부족의 원인으로 주변 정보환경의 열악함을 지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조사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 정보부족 혹은 정보 결핍의 주요 원인을 주변 환경 특히 정보환경의 열악함에서 찾고자 했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²⁸⁾

여기서 ‘노력의 부족’과 ‘지식의 부족’은 상이한 진단으로 그 처방 또한 달라야 하기 때문에 좀

28) 필자가 수행했던 재일한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34%가 ‘열악한 정보환경’을 정보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였었다.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계층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처방의 다양성을 도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에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응답 내용을 다시 분석해 보고 면담과정에서 밝혀낸 특성을 대입해 보니, 다음과 같은 경향이 두드러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고학력자일수록 '노력의 부족'을, 저학력자일수록 '지식의 부족'을, 그리고 고학력자들에서 보다는 저학력자들 사이에서 '환경의 열악'을 정보부족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경향이 짙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직업과 관련하여서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즉, 전문직이나 사무직 종사자들은 '노력의 부족'을, 자영업자나 비사무직 종사자들은 '지식의 부족'을 정보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환경의 열악'을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IV. 정보추구의 보편적 양태

주지하다시피 정보란 고민에 봉착하였을 때만 부족과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학자 Case가 명료하게 정리하였듯이 정보는 일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추구되기도 하고, 미래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지적 영양분'으로 추구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다. 정보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섭취되기도 하고 무의식적이고 수동적으로 섭취되기도 한다.²⁹⁾ 이렇듯 일상에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다양한 소스로부터 '영양가가 있을 만한' 정보를 섭취하여 우리의 지식 상태를 업데이트한다. 따라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보행태 연구에서는 그러한 일상적 정보소스의 실체를 파악하여 해당 집단의 정보빈곤과 정보환경의 실태를 가늠하는 기초 자료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면서 지금부터는 조사대상 한인들이 일상적 정보를 얻기 위해 선호하는 소스는 무엇이며, 그러한 정보소스의 성향과 속내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정보소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하나하나 밝혀보도록 하자.

1. 정보소스의 유형과 실체

먼저, 조사대상 한인들이 일상적으로 선호하는 정보소스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참가자들에게 다음 질의를 제시하였다.

29) 또한 기피 혹은 회피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는 배제한다.

질의 8: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일상에 필요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다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1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 _____ 신문이나 TV 등의 대중매체
- _____ 책이나 잡지 등의 서적
- _____ 가족을 비롯한 지인(친구, 이웃, 동료 등)
- _____ 관련 분야의 전문가(변호사, 의사, 목사 등)
- _____ 공공 혹은 민간 기관이나 단체
- _____ 인터넷의 웹사이트
- _____ 기타

질의응답자의 답변을 분석해 보니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선호도(35.1%)가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신문과 TV(32.5%), 가족/지인(17.9%), 전문가(7.3%), 서적(4.6%), 기관/단체(2.6%)의 순으로 선호도가 집계되었다. 이렇듯 인터넷 사이트나 신문 혹은 TV와 같은 대중적 성격의 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두드러졌는데,³⁰⁾ 이러한 분석결과를 앞서 논의했던 ‘고민의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정보원’과 비교해 보면 이 지역 한인들의 정보추구행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성향을 발견하게 된다. 즉, ‘일상생활을 위한 영양제로서의 정보는 대중적 성격의 정보소스로부터 주로 얻지만,’ ‘특정 고민의 해결을 위한 치료제로서의 정보는 가족이나 이웃 혹은 전문가와 같은 인적 소스’로부터 주로 얻고 있었다.

‘주변의 인적 소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소수민족은 물론이고 일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보행태연구에서도 빈번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특히, 고민의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유용성을 고려하면 대중적 성격의 소스보다는 인적 소스에 대한 선호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보고되고 있다. 다만 <질의 8>의 답변과 관련하여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적지 않은 전문가를 ‘일상적 정보소스’로 가장 선호하고 있는 한인의 비율이 7.8%에 이르는 것은 소수민족집단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행태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는 앞서 ‘고민의 해결을 위해 자주 찾는 대상’에 대한 논의에서 조사대상 한인들의 전문가에 대한 선호도가 22.4%에 이르렀던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현상으로, 이들 지역의 인구학적 배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에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답변 결과를 다시 분석해 보았더니, 흥미롭게도 학력, 직업, 거주신분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고학력자일수록 대중매체와 가족/지인에 대한 선호도는 낮은 반면에 전문가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선호도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에 있어서는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전문가와 기관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와 서적

30) 여기서 인터넷에 대한 높은 선호도는 재일한인의 연구에서 나타났던 ‘대중매체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미국 중서부지역 한인들의 ‘정보기술’의 활용이 재일한인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참고로, 재일한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대중적 성격의 정보매체(신문, TV, 라디오, 책, 잡지, 인터넷) 중에서 인터넷, 신문, TV에 대한 선호도는 각각 31.3%, 30.7%, 20.2%로 나타난 바 있다.

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자영업과 비사무직 종사자들의 경우 대중매체와 가족/지인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거주신분에 있어서도 시민권자는 대중매체나 전문가와 같은 공식적인 정보원을, 영주권자들은 가족/지인과 같은 비공식적 정보원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다면 조사대상 한인들이 선호하는 이러한 일상적 정보소스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모습과 성격을 지니고 있을까? 여기서는 '정체성'의 관점에서 그 속내를 들여다보고자 다음의 질의를 제시하였다.

질의 9: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선생님께서 마주치는 일상적 정보소스는 그 성격에 따라, 한국 것, 미국 것, 그리고 동포사회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질의 8>에서 제시한 정보소스의 경우, 일상적 정보소스로서 어느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9>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를 <표 2>에 정리하였다. 표에 나타나듯이 조사대상 한인들은 신문, 방송, 잡지, 웹사이트, 기관, 전문가 등 거의 대부분의 공식적 정보소스는 미국 주류사회의 것을, 친구, 이웃, 동료와 같은 비공식적 정보소스는 '같은 한인동포'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였다. 다만, 서적에 있어서 책만큼은 '한국의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이처럼 중서부지역 한인들에게서는 대중적 성격의 혹은 전문성을 요하는 정보소스는 미국 주류사회의 것을, 반면에 개인적 친소관계에 따른 비공식적 정보소스는 삶의 배경이 동일한 한인동포를 선호하는 성향을 뚜렷하게 엿볼 수 있었다.³¹⁾ 이러한 조사결과는 "LA지역 한인들의 정보추구는 전적으로 자신들의 소수민족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윤정옥의 연구결과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동일한 소수민족집단 내에서도 거주지역의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정보소스의 정체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보소스의 정체성은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도 흥미로운 차이를 보였는데, 앞서 논의한 정보소스의 유형에서와 유사하게, 학력, 직업, 거주신분에 따른 차이가 특히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고학력자와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친소관계에 따른 인적 소스(친구, 이웃, 동료)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정보소스에서 미국 주류사회의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농후하였다.³²⁾ 반면에 저학력자와 블

31) 이러한 성향은 재일한인에게서도 유사하게 발견된 바 있는데,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의 경우 대중매체와 관련기관은 일본 주류사회의 것을 선호하면서도 인적 소스만큼은 같은 한인동포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조사대상 재미한인과는 달리 정보소스에 따라 고려할만한 차이도 관찰되었는데, 가령, 잡지는 물론이고 책 또한 일본 사회의 것을 선호하였으며, 전문가의 경우 일본인 전문가보다는 한인동포 전문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32) 이는 책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특히 고학력자의 경우 미국책에 대한 선호도가 한국책보다 높았다. 또한 친구, 이웃, 동료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도, 비록 순위에 있어서는 같은 동포에 대한 선호도에 미치지 못했지만, 미국인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만큼은 저학력자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루컬러 종사자의 경우 한국의 것이나 동포사회의 것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성향을 보였다. 거주신분에 있어서도 시민권자는 미국의 것에 대한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영주권자는 정보소스에 따라 다소 상이함을 드러내 보였다.³³⁾

〈표 2〉 일상적 정보소스의 정체성

	한 국		동 포		미 국		기 타*		합 계 (%)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신문	41	27.7	40	27.0	60	40.5	7	4.8	148	100.0
방송	29	19.7	15	10.2	95	64.6	8	5.5	147	100.0
책	69	50.7	20	14.7	43	31.6	4	3.0	136	100.0
잡지	35	25.9	25	18.5	75	55.6	0	0.0	135	100.0
기관(단체)	15	11.6	49	38.0	62	48.1	3	2.3	129	100.0
전문가	13	9.4	40	28.8	83	59.7	3	2.1	139	100.0
친구	36	23.8	84	55.6	22	14.6	9	6.0	151	100.0
이웃	15	10.9	78	56.5	40	29.0	5	3.6	138	100.0
동료	17	12.5	64	47.1	50	36.8	5	3.6	136	100.0
웹사이트	49	37.1	15	11.4	58	43.9	10	7.6	132	100.0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변수에 따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주지역에 따른 성향의 차이, 즉, '중서부지역의 한인에게서 드러난 미국 주류사회의 정보소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 보다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 민족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어 있는 대도시지역의 한인들이 주류사회보다는 한인사회 내부의 정보소스에 보였던 높은 의존 경향과는 대립되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결과는 이 연구에서 설정한 첫 번째 논제, 즉, "소수민족집단의 정보행태는 거주지역에 형성된 민족 커뮤니티의 규모와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전제가 타당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2. 정보소스의 선호 이유

중서부지역 한인들이 일상적 정보의 추구에 있어, 특히 정보소스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털어보고자 이번에는 다음의 질의를 제시해 보았다.

33) 가령, 신문, 친구, 이웃, 동료는 동포사회의 것을, 방송, 잡지, 기관, 전문가는 미국의 것을, 그리고 책은 한국의 것을 선호하였다. 이런 가운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성향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인터넷 웹사이트로, 시민권자가 미국사이트를 선호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영주권자는 한국사이트를 선호하였다.

질의 10: 앞서 여러분은 일상적 정보소스를 선택하시면서 세 가지(한국, 동포, 미국) 중에서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를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접근하여 이용하기가 편리해서(접근성)
- ② 비용 측면에서 보다 유리해서(비용)
- ③ 언어 소통이 보다 자유로워서(언어)
- ④ 보다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서(정보質)
- ⑤ 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해서(정보量)
- ⑥ 사생활의 비밀 보장이 철저해서(프라이버시)
- ⑦ 기타 _____

다음의 <표 3>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선호 이유'에 대한 답변은 정보소스의 유형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가령, 신문, 방송, 잡지, 웹사이트와 같은 대중적 성격의 공식적 소스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전문가와 기관(단체)과 같이 전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식적 소스의 경우에는 정보의 질이, 친구, 이웃, 동료와 같은 인적 관계에 기반한 비공식적 소스의 경우에는 언어가, 그리고 책의 경우는 잡지와 달리 언어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 지목되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보아 접근성, 언어, 그리고 정보의 질이 일상적 정보소스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접근성은 모든 정보소스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정보소스의 선호 이유

	접근성		비용		언어		정보質		정보量		프라이버시		합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신문	54	40.9	2	1.5	30	22.7	42	31.8	4	3.0	0	0.0	132	100.0
방송	51	39.5	7	5.4	26	20.2	28	21.7	17	13.2	0	0.0	129	100.0
책	30	25.0	2	1.7	64	53.3	15	12.5	9	7.5	0	0.0	120	100.0
잡지	35	29.9	5	4.3	33	28.2	30	25.6	14	12.0	0	0.0	117	100.0
기관(단체)	33	31.1	0	0.0	15	14.2	45	42.5	12	11.3	1	0.9	106	100.0
전문가	21	17.9	1	0.9	21	17.9	52	44.4	11	9.4	11	9.4	117	100.0
친구	34	27.6	0	0.0	59	48.0	20	16.3	4	3.3	6	4.9	123	100.0
이웃	43	36.1	1	0.8	48	40.3	21	17.6	2	1.7	4	3.4	119	100.0
동료	37	31.6	0	0.0	44	37.6	26	22.2	7	6.0	3	2.6	117	100.0
웹사이트	43	38.4	1	0.9	23	20.5	23	20.5	20	17.9	2	1.8	112	100.0

이러한 조사결과를 앞서 논의한 정보소스의 정체성과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언어에 대한 선호도³⁴⁾와 연계하여 분석해 보면, 중서부지역 한인의 정보행태와 관련한 보다 흥미로운 성향을 파악

34) 설문조사를 통해 일상 언어에 대한 선호도를 질의한 결과, 한국어(65%), 영어(7.6%), 두 언어 모두(27.4%)로 나타나, 이 지역 한인들의 한국어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언어의 사용과 관련한 이러한 성향은 조사대

할 수 있다. 즉, 신문, TV, 잡지, 그리고 웹사이트의 경우에 ‘미국의 것’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가장 큰 이유는 ‘접근의 용이함’에 있었으며, 전문가와 기관의 경우 ‘미국의 것’에 대한 높은 선호도는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이 고민의 해결에 보다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비해 친구나 이웃 그리고 동료의 경우 ‘동포’를 선호하는 주요 이유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동일 언어의 사용’에 더해 심리적이고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편하다’는 면에 있었다.³⁵⁾

여기서 언어가 인적 소스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과는 달리 대중적 소스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점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조사대상 한인의 65%가 일상의 언어로 한국어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중적 정보소스의 선택에 있어 언어가 아닌 접근성과 정보의 질을 고려하면서 ‘미국 주류사회의 대중매체’를 선호하고 있는 현상은 미국의 여러 소수민족집단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의 주장과는 상이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조사결과는, 중서부지역 한인 커뮤니티의 영세한 규모와 미약한 활동, 특히, 지역 동포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매체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매체’나 ‘재미한인매체’ 등의 보급과 유통조차 빈약한 상황을 고려하면,³⁶⁾ 비로소 설명과 납득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거주지역에 형성된 ‘민족 커뮤니티의 활성화의 정도’에 따라 동일한 소수민족집단이라도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정보소스는 그 유형과 정체성이 다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의 이러한 발견은 “소수민족집단에서는 주류사회의 정보소스에 대한 기피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그러한 현상은 주로 주류사회의 언어에 대한 장애로부터 기인한다”는 Metoyer-Duran 등의 기존 주장이 보편적 적용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차라리 “이민자들의 적응 및 정착 행태는 이민자들의 다양한 개인적 배경과 그들이 정착하게 되는 주류사회의 구조적 측면에 따라 다양성을 띠고 나타난다”는 분절적 동화론자들의 주장이 소수민족 집단의 정보행태를 설명하는 보편적 근거로서 보다 적합해 보인다.

V. 민족정체성과 정보행태

지금까지의 논의가 중서부지역 한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정보행태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거주지역에 따른 정보행태의 차이’를 밝혀내는데 무게를 두었다면, 여기서의 논의는 두 번째 논제인 ‘민족

상 한인들이 거의 대부분 1세(86.9%)와 1.5(11.5%)세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35) 앞서 설명한대로, 조사대상 지역에서 실질적인 정보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한인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 지역 한인들 사이에 이러한 경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6) 면담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지역의 한인점포 등에 방문조사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지역의 경우, 대도시지역에서는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한인커뮤니티 디렉토리나 가이드 등도 희귀하였고, 한국의 미국 현지 신문(가령, 한국일보나 중앙일보 등)조차 지국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보급사무실 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정체성에 따른 정보행태의 차이'를 밝혀내는데 무게를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질의 1>에서 구분하였던 세 유형(즉, 주류동화형, 동포사회형, 모국지향형)을 참조하면서, 이들 집단 사이에 ① 민족정체성에 따른 정보행태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② 정체성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보요구의 측면에서는 정보부족의 농도와 유형에 있어서, 그리고 정보추구의 측면에서는 선호하는 정보소스의 유형과 정체성에 있어서 세 집단 사이의 차이를 밝혀내고자 한다.

1. 정보요구에서의 차이

앞서 <질의 5>를 통해 필자는 '일상에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 질의의 주요 목적은 '일상에서 느끼는 정보부족의 농도'를 측정함과 동시에 '잠재적 정보요구의 강도'를 가늠해 보는데 있었다. 조사결과, 질의응답자의 84.1%가 '그런 경험이 있다'는 반응을 보여 조사대상 한인집단의 잠재적 정보요구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정보부족의 경험은 민족정체성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띠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다음의 <표 4>에 정리한 것처럼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일상에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세 집단 중에서 '모국지향형' 집단이 겪고 있는 정보장애 현상이 가장 심각하며, 이로 인한 잠재적 정보요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내재되어 있을 것이란 짐작을 가능하게 한다.

<표 4> 민족정체성과 정보부족 경험

	경험이 '있다'		경험이 '없다'		합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주류동화형	48	75.0	16	25.0	64	100.0
동포사회형	45	88.2	6	11.8	51	100.0
모국지향형	34	94.4	2	5.6	36	100.0
전체	127	84.1	24	15.9	151	100.0

민족정체성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부족을 느끼는 정보의 영역'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다(표 5 참조). 세 집단 모두에서 법률정보에 대한 부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정보에 있어서는 집단별 차이가 뚜렷하였다. 영역별로 나타나는 특성을 간추려 보면, 주류동화형에서는 문화나 대인관계 영역에서 정보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동포사회형에서는 교육이나 복지 영역에서 정보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모국지향형의 경우에는 또 달라서 경제나 금융의 영역에서 정보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사회참여 등에

대한 정보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렇듯 조사결과는, '동일한 지역의 한인집단 내에서도 '민족정체성의 농도'에 따라 일상적 관심 영역과 그에 따른 정보요구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민족정체성과 정보부족 영역

	법률	의료	행정	교육	경제	금융	복지	정치	여가	문화	종교	사회 참여	대인 관계	기타	합계 (%)
주류동화형	28.4	16.8	10.5	8.4	5.3	6.3	3.2	3.2	1.1	4.2	2.1	4.2	5.3	1.1	100.0
동포사회형	28.9	18.1	6.0	12.0	6.0	4.8	8.4	2.4	1.2	1.2	1.2	4.8	3.6	1.2	100.0
모국지향형	27.7	9.2	10.8	6.2	13.8	12.3	6.2	3.1	1.5	1.5	1.5	1.5	3.1	1.5	100.0
전체	28.4	15.2	9.1	9.1	7.8	7.4	5.8	2.9	1.2	2.5	1.6	3.7	4.1	1.2	100.0

우리는 앞서 조사대상 한인들이 느끼고 있는 정보부족의 원인을 '노력의 부족,' '지식(능력)의 부족,' 그리고 '환경의 열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민족정체성에 따른 상대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다음의 〈표 6〉에 그 차이를 정리해 놓았다. 표에 나타나듯이, 주류동화형은 60.4%에 이르는 다수가 정보부족의 원인을 '자신의 노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에 비해 동포사회형은 48.9%가 그리고 모국지향형은 45.5%가 정보부족의 가장 큰 원인을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부족'한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동화에 소극적일수록 정보부족의 원인을 노력의 부족 보다는 지식과 능력의 부족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이 농후함을 보여준다. 이는 다시, 후술할 '동화에 소극적일수록 주류사회의 정보소스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현상'과 함께, 민족정체성이 정보행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표 6〉 민족정체성과 정보부족의 원인

	노력의 부족		지식의 부족		환경의 열악		합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주류동화형	29	60.4	14	29.2	5	10.4	48	100.0
동포사회형	14	42.4	15	45.5	4	12.1	33	100.0
모국지향형	18	40.0	22	48.9	5	11.1	45	100.0
전체	61	48.4	51	40.5	14	11.1	126	100.0

2. 정보추구에서의 차이

앞서 우리는 조사대상 한인들이 일상생활을 위한 '영양제로서의 정보'는 대중적 성격의 소스로부터, 특정 고민의 해결을 위한 '치료제로서의 정보'는 개인적 성격의 소스로부터 주로 얻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또한, 그러한 정보소스의 속내를 미국사회의 것, 동포사회의 것, 한국사회의 것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그들이 특정 정보소스를 선호하는 이유를 소스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학력, 직업, 거주신분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행태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그러한 논의를 민족정체성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 7>은 민족정체성에 따라 '선호하는 정보소스의 유형'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민족정체성에 따라 정보소스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상대적 선호도'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차이가 나타난다. 가령, 대중매체의 경우 '동화의 농도'가 짊을수록 '선호의 강도'도 커지는 반면, 가족/지인의 경우에는 '동화의 농도'가 짊을수록 '선호의 강도'는 작아지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전문가에 있어서는 주류사회형에서 나타나는 선호의 강도가 동포사회형이나 모국지향형에서 나타나는 강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비용을 치르고라도 전문 정보를 얻고자 하는 '절실함'이 동포사회형이나 모국지향형 한인들에 비해 훨씬 덜하기 때문이며, 이미 정착을 위한 법률 혹은 제도적 정보에는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³⁷⁾

<표 7> 민족정체성과 선호하는 정보소스의 유형

	대중매체		서적		가족/지인		전문가		기관/단체		웹사이트		합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주류동화형	23	35.9	4	6.3	9	14.1	2	3.1	3	4.7	23	35.9	64	100.0
동포사회형	16	31.4	2	3.9	10	19.6	6	11.8	0	0.0	17	33.3	51	100.0
모국지향형	10	27.8	1	2.8	8	22.2	3	8.3	1	2.8	13	36.1	36	100.0
전 체	49	32.5	7	4.6	27	17.9	11	7.3	4	2.6	53	35.1	151	100.0

이러한 '선호하는 정보소스의 유형'에서의 차이에 더해, '선호하는 정보소스의 정체성'에서도 민족정체성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였다. 다음의 <표 8>은 유형에 따라 '가장 선호하는 정보소스의 정체성'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에 나타나듯이, 민족정체성에 따른 차이는 신문, 동료, 기관, 웹사이트에서 가장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가령, 한국신문에 대한 선호는 모국지향형에서, 그리고 미국동료에 대한 선호는 주류사회형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기관의 경우에는 주류동화형과 모국지향형이 미국기관을, 동포사회형은 동포기관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있어서는 주류동화형과 동포사회형이 미국웹사이트를, 모국지향형은 한국웹사이트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³⁸⁾

이러한 '절대적 선호도'에 있어서의 차이에 더해 '상대적 선호도'에서는 그 차이가 보다 명료하였다. 가령, 친구/이웃/동료의 경우에 '동화의 농도'가 짊을수록 한국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37) 목회자들과 한인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자료에서.

38) 그 이유는 뒤에서 논의하는 '선호하는 정보소스의 속내'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이들이 선호하는 기관/단체는 '동포사회의 기관/단체'나 조사대상 중서부지역의 경우 한인동포사회의 규모가 작다보니 활동도 미약하여 한인 기관이나 단체의 일상적 정보소스로서의 기능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로 컸으나,³⁹⁾ 전문가의 경우에는 ‘동화의 농도’가 열을수록 한인동포를 선호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짙게 나타났다.⁴⁰⁾ 특히 웹사이트에 있어서는 민족정체성에 따른 ‘상대적 선호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모국지향적일수록 한국의 웹사이트를, ‘동화의 농도’가 짙을수록 미국웹사이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었다.⁴¹⁾ 이처럼 민족정체성은 선호하는 정보소스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 민족정체성과 ‘가장’ 선호하는 정보소스의 정체성

	신문	방송	책	잡지	친구	이웃	동료	전문가	기관	웹사이트
주류동화형	미국	미국	한국	미국	동포	동포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동포사회형	미국	미국	한국	미국	동포	동포	동포	미국	동포	미국
모국지향형	한국	미국	한국	미국	동포	동포	동포	미국	미국	한국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소수민족 구성원의 ‘민족정체성’과 ‘일상적 정보행태’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이 연구의 두 번째 논제 역시 실증적으로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일상적 정보행태와 거주지역에 형성된 민족 커뮤니티의 규모와 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검증과 함께, 소수민족집단의 정보행태에 관한 기존의 주장들이 여러 면에서 보완되어야만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의 결과는 소수민족의 정보행태를 집단 전체의 관점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자 했던 기존 연구의 관점과 논의는 보완되어야 하며, 특히, 소수민족의 정보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필요함을 일깨워 준다.

VI. 결 론

이 연구에 앞선 일련의 ‘정보행태’ 연구를 통해 필자는 타지로 이주한 소수민족이 겪고 있는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정보빈곤 현상에 주목해 왔다. 가령,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나 일본 거주 한인들의 일상적 정보행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들 이주자들의 대부분이 주류 사회의 정보

39) 가령, 미국친구의 경우는 주류동화형 19.7%, 동포사회형 13.7%, 모국지향형 9.4%이었고, 미국이웃의 경우에는 주류동화형 30.4%, 동포사회형은 29.2%, 모국지향형 18.5%이었으며, 미국동료의 경우에는 주류동화형 47.4%, 동포사회형 30.4%, 모국지향형 25.9%로 조사되었다.

40) 가령, 미국전문가에 대한 선호도는 주류동화형에서 71.12%, 동포사회형에서 50.0%, 모국지향형에서 48.1%로 나타난 반면, 동포전문가에 대한 선호도는 주류동화형에서 18.6%, 동포사회형에서 34.8%, 모국지향형에서 40.7%로 나타났다.

41) 가령, 미국웹사이트에 대한 선호도는 주류동화형에서 52.6%, 동포사회형에서 47.6%, 모국지향형에서 22.2%로 나타난 반면, 한국웹사이트에 대한 선호도는 주류동화형에서 28.1%, 동포사회형에서 33.1%, 모국지향형에서 55.6%로 나타났다.

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그러한 정보소외는 만성적 정보빈곤으로 이어져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행태는 동일 소수민족 내에서도 인구학적 혹은 환경적 변인에 따라 소집단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획일적인 '정보복지정책'만으로는 그들의 정보빈곤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필자가 도출해 내었던 이러한 연구결과의 일부는 관련분야의 선행 연구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조사대상 소수민족의 정보행태를 보편적인 관점에서 밝혀내려고 노력하다보니 소수민족 내부에 존재하는 정보행태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데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그러다보니 그들이 밝혀낸 소수민족의 정보행태가 그들 고유의 가치관과 행태에 근거하는 것인지, 소수민족 커뮤니티가 처해있는 환경적 요인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인지 능력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개인적 변화에 따른 것인지, 혹은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해내는데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공과를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나름대로의 의의를 지닌다. 비록 기존 연구의 한계를 온전히 넘어서지는 못하였지만, 이 연구는 소수민족의 정보행태에서 나타나는 역동성과 다양성 그리고 그 원인의 일부나마 드러내 보이고자 하였다. 특히, 소수민족의 정보행태가 집단이 처한 거주환경과 구성원의 특성과 성향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소수민족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정보시스템 나아가 정보복지정책의 개발과 실행은 소수민족을 구성하는 다양한 소집단들의 복합적인 정보행태에 대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메시지로 그득 채웠다. 이제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 연구가 소수민족, 특히 다문화국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정보행태 연구와 정보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